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 Yun, Ph. D., D.D., D. D.

설교목사
Preaching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seoulchurch.or.kr>

“고난 속에 감춰진 진정한 축복”

(True Blessing Hidden in a Hardship)

■ 사무엘상 1장 7-18절

오늘 본문말씀에는 한나라는 여인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좋은 가문의 출신으로서 참으로 사람이 많고, 인자하며,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큰 부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부자 남편에게 한나는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나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는 설움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한나처럼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아픔과 슬픔이 있으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나는 아들을 낳을 수 있었고 그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그 시대를 밝히는 귀한 종으로 쓰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 외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아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한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인 진리들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1.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말씀인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에 반복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한나가 임신을 할 수 없어서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눈물짓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저 자식 낳고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인생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가는 모든 세대를 밝힐 수 있는 역사적인 영적인 거장 사무엘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과 간증을 남기기를 원하셨습니다.

2. 기도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쏟아 놓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괴로워서 포기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며 하소연합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술 마시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런데 한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승리의 비밀이며, 놀라운 기적의 비밀입니다(마7:7-8절, 빌4:6-7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온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갈렙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3.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이미 응답된 줄로 믿고 기쁨과 확신 가운데 전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눈물로 기도하는 데까지는 나오시는데, 그 기도가 분명히 응답 될 것이라는 믿음의 기도까지는 잘 못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11:24절)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기도해 놓고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고난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고통과 눈물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심령을 쏟아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 한나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근심의 빛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진 필요한 것은 이런 한나의 믿음입니다.

맺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의 보자기 속에 쌓여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바라보며 그 괴로움과 한숨과 눈물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십시오. 승리하시는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 (매일)	본당 II층
주 일 예 배	I 부	가 족 예 배	오전 9시 - 9시 50분	본 당 II,III,IV층
		분 반 공 부	오전 10시 - 10시 30분	
	II부	일 반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 12시 30분	
	III부	(경배와찬양) 청 년 예 배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 3시 10분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찬 양 예 배		오후 5시	본 당
	어린이 찬양예배		오후 5시	101호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II,III,IV층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5시	603호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20분	본 당 II층

교회학교 안내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12개월)		I 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장 년 부	I 부 (30대)	오전10시/오후3시30분	401호/702호	
유아부(13개월-4세)		II 부	오전11시20분	유아부 706호		II 부 (40대)	오전10시	301호	
						III부 (50대)	오전10시	401호	
유치부(5세-7세)		III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IV부 (60대)	오전10시	301호	
						V 부(70대이상)	오전10시	603호	
					사 랑 부		오전10시30분	102호	
유 년 부		오전 10시		701호	에바다부	I 부	오전11시20분	본당	
초 등 부		오전 10시		101호		II 부	오후2시	603호	
중 등 부		오전 10시		501호	English Bible Class		오후12시30분	101호	
고 등 부		오전 10시		601호	새 가 족 부	I 부	오전10시	602호	
대 학 부		오후 3시20분		701호		II 부	오후12시40분		
청년 1,2부		오후 3시20분		603, 601호		III부	오후3시20분		
대학부 토요일집회		오후 4시		501호		학습 준비반	오전10시, 오후12시40분	602호	
청년1,2부 토요일집회		오후 5시		603, 601호		세례 준비반	오전10시, 오후12시40분	609호	
신혼가정부		오후3시20분		802호	소요리문답부		오전10시,12시40분	801호601호	
디아스포라부		오후 1시		903호	신앙강좌 I·II부		오후 12시40분	904·701호	

우리의 비전(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부목사 한상은 서명철 정수길 장석남 노한상 황광 박종민 문정훈 유문건 박광일 박진아 전도사 지해영
 영어목회담당목사 Joshua Cho 교육목사 임규현 김안성 교육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영한 김재진 김은수 김철홍
 선교사 강아급·주하나, 이시라, 권요셉·조애스터, 김모세·이하나(동아시아),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강해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스브로토바로이, 조남해, 박진영·김미성(앵글라데시), 이재율·박병진, 전호진(캄보디아), 조범원·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정상진·홍성일
 (말라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종길·홍미영(말레이시아), 손신일·민매라(체코), 이재훈·박재현(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해(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김인서·현해옥(아르헨티나), 홍남기·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현미순(일본), 김평강·최시라(동남아시아),
 박봉규, 김태식, 윤영모, 추수희,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이선희(병원선교)
 Thauang Neigh Mang·Cin Swan Mung·Ko Tin·Kha Ma·May Kya(미얀마)

Presider : Rev. Joshua Cho

Westminster Hall

Organist

Presider

Presider

Prelude

Call to worship Psalm 118:5-7

Invocation

* Hymn 2(6)

* Apostles' Creed

* Responsive Reading No.27

* Doxology 1(1)

Prayer

Hymn 265(199)

Scripture Reading Luke 3:21-38

Member's Fellowship

Offering

* Offering Hymn 634(70)

* Offering Prayer

Anthem There's one Above All Earthly Friends

Welcome to Newcomers

Sermon Baptism and Genealogy

* Hymn 8(9)

* Benediction

* Singing of the Lord's Prayer

Elder Sung Ioo Hong

Congregation

Presider

Congregation

Congregation

Congregation

Preacher

Jerusalem Choir

Congregation

Rev. Joshua Cho

Congregation

Preacher

Congregation

Luke 3:21-38

Summary of the sermon

First, Jesus came to join us. Since he was sinless, he didn't need to be baptized. Jesus did this to identify with sinners. Also, his genealogy reminds us that his family was filled with sinners. It was love that led Jesus to identify with sinners through baptism. And it was love that led Jesus to die in the sinner's place on the cross. Do you know this love? Next, Jesus came to give us a taste of heaven. God gave the people a revelation: Jesus praying, the Spirit descending, and the Father blessing. This was a glimpse of the perfect fellowship within the Trinity. When we see a father tell his child, "I love you. I'm so proud of you," it is a reflection of heaven. God invites us to see that joy. Finally, Jesus came for all people. The genealogy marked the beginning of Jesus' ministry. There are notable names, like David and Abraham, but the genealogy ends with Adam. Jesus is a Savior, not just for Israel, but for all people everywhere. No matter what your background or history is, you can receive Jesus Christ as your Savior today!

Do you see this amazing love of God? It is a love that invites us, not only to see the Trinitarian fellowship, but to join in. When we believe in Christ, one of the effects is that we are adopted as sons of God, so that He says to us, "I love you, just as I loved my Son! With you, I am well pleased!" May we celebrate the Trinitarian joy that we will share in heaven!

Announcement

- Welcome to our worship! After worship, we invite everyone to join us for fellowship in Rm. 104.
- Thank you to everyone who helped and supported our first "Lean On Me" Open House on Sat!
- LOM Committees will meet one more time in Room 104 at 2:15pm for debriefing.
- Every Wed at 8:30pm, we meet in Room 603 to study the Gospel of John. Please join us!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I	오전 9시	노현상 목사	노현상 목사
II	오전 11시 20분	황 광 목사	박두호 장로
III	오후 2시	박종민 목사	임훈규 장로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히 11:6 ...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2(6)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3부(삼계령) 다 함 께 2부37(사편91편)
* 송 영 Doxology	1(1)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488(539)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삼상 2:1-11 ...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헌금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진정한 믿음의 열매" ... 박노철 목사 (Fruits of the True Faith)
* 찬 송 Hymn	357(397)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박노철 목사 · 설교 박정일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62:1-2 인 도 자
찬 송	28(28) 다 함 께
찬 기도	구경두 집사
찬 송	406(464) 다 함 께
성 경	시 131:1-3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섬을 노래함" 설 교 자
특별찬양	말 은 이
* 찬 송	413(470) 다 함 께
* 축 도	다 함 께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 인도 · 설교: 박노철 목사

기 도	I부: 양정일 권사, II부: 박정임 권사
성 경	느 5:1-13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공동체적 문재를 해결하는 지혜" 설 교 자

새 벽 기도 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현현숙 · 홍혜란 · 김양인

설 교 박노철, 유문건 목사

금 요 기도 회

오후 8시20분

본당 2층

설 교 박노철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예 배	찬양대	연 주 곡 명	작(편)곡자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영광	Charles F. Gounod	유태완	차주연	조현정	윤주일
II 부	할렐루야	놀라워라 주의 사랑	David T. Clydesdale	고성진	김현정1	김양인	박광서
III 부	임마누엘	십자가	Ralph E. Hudson	류중기	강만정1	양경실	이하진
찬양예배	배들레헴	내게 넘치는 주의 은혜	Arr. by Joseph Linn	김낙원	오신옥	박수강	
영어예배	예루살렘	There's one Above All Earthly Friends	J. Oatman Jr.	심상희	최수환	이승민1	
수요 I 부	호 산 나	소금과 빛으로 머문라신 세상	황의구	서희숙	김윤지2	홍혜란	
수요 II 부	시 온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C. B. Adams	백경화	이순재	반지원	

<헌금송>

I 부	조 등 부	천지창조	John M. Nielson	김지현		홍혜란	
II 부	그레이스앤드팬	원란과 핍박 중에도	Daniel Longhin	송재일			
III 부	아벤관왕악단	Come and Praise the Lord Our King	William David Young	임병창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박환옥	7-8	리브가	본인	이화전	7-8	루다가	박환옥	이재경	14-12	대학부	장진영
이종래	13-18	한나	이유희/전파애	이은경	15-2	도르가	김인영	양재원	5-5	사랑부	이소연/최유진
장기영	1-14	엘나아	박이선/새해경	이동근	4-10	창광부	이윤영	박수연	16-15	대학부	이유희/전파애
홍재원	14-13	엘나아	본인	이윤영	3-16	대학부	본인	이인구	6-10	사랑부	본인
유광숙	14-13	에스터	본인	김연희	14-11	대학부	본인	이유진	16-1	대학부	임명숙/김민경
김봉희	1-14	미리아	박이선/새해경	이정은	3-9	대학부	박현영	최동철	10-6	대학부	최정환
박원근	16-4	비움	이유희/전파애	이선정	3-16	대학부	본인	박주원	16-15	고등부	이유희/전파애
이소화	16-15	보리	이유희/전파애	홍소희	14-14	대학부	본인	최정은	10-6	고등부	최정환
김재옥	2-14	보리	박이선/김재옥	김경은	5-8	사랑부	본인	한지현	교육국	초등부	박김희/구민정

☞앞면에서 계속

7.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병무, 교육,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2-308호) ※ 전화 예약 010-5779-1329

8. 의료 상담 / 박동원(한방)

주인 오후 1시 902호에서 의료 상담 및 진료를 합니다. ※ 전화 예약 : 011-9759-2299

9. 일제심방 / ·15일(화) : 1-8, 14-9

·17일(목) : 14-10

·18일(금) : 1-9



열매를 보아야 알지니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열매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산 사람이다. 인간은 누구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 열매를 하나님에 감찬하신다. 거기엔 변명의 틈이 없다. 열매 그 자체로만 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러 내시는 이유는 그 나무가 어떤 것인지를 아시기 위함이다. 나무와 열매는 한 통속이기 때문에 따로 평가할 필요가 없다. 가시나무가 포도송이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주님이 심으신 새로운 나무에서만 맺도록 되어 있다. 훌륭한 간판과 높은 자리에 있다고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사람이 되어 하나님에 원하시는 새 맛을 내는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하자.

-이종윤 목사 신앙 컬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교회에서 음식을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니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